

“강진 음식특화거리’로 미식여행 떠나요”

미향횃집·돼지불고기거리 ‘인기’
청정 수산물·무공해 특산품 저렴
병영5일시장서 불금불과 행사도

푸른 남해의 속삭임과 들판의 풍요로움이 공존하는 강진에서 ‘물’과 ‘불’이라는 대비를 이룬 음식들이 관광객의 오감을 사로잡고 있다. 강진군이 지역 대표 음식 특화거리인 ‘마량 미향횃집거리’와 ‘병영 돼지불고기거리’를 앞세워 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18일 강진군에 따르면 마량 미향횃집거리는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명소로,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열리는 ‘마량농도수산시장’에서는 청정 수산물과 무공해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강진군 ‘마량 미향횃집거리’의 대표 메뉴인 싱싱한 회 한 상과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의 대표 메뉴인 매콤한 양념과 불맛이 어우러진 연탄불 돼지 불고기.



〈강진군 제공〉

연탄불 위에서 지글대는 돼지고기의 향기가 강진군 병영면의 음식거리를 휘감는다. 연탄불에 구워낸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돼지불고기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한 입 가득 퍼지는 불

맛은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한다. 곁들여 먹는 갖가지 밑반찬은 푸짐한 한 상을 완성한다. 병영 돼지불고기거리에 위치한 ‘병영5일시장’에서는 신나는 음악과 함께 돼지불고기를 즐길

수 있는 강진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엔, 불고기 파티) 행사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11월1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에 열리며 앉아만 있어도 어깨가 들썩이는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강진 음식특화거리의 매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에만 그치지 않는다. 계절의 숨결을 담은 제철 식재료와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음식의 맛을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다. 회 한 상부터 불고기정식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어 취향 따라 발길 닿는대로 음식을 골라 먹는 재미도 매력을 더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 음식특화거리는 단순한 ‘먹는 거리’가 아닌 ‘입’으로 먹고 눈으로 마시며 ‘마음’으로 기억되는 곳”이라며 “올 가을 남도의 진짜 맛과 멋을 찾아 떠나는 여행자들에게 이곳은 놓칠 수 없는 목적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 음식특화거리는 전남도에서 지정한남도음식거리로 2021년에 ‘마량 미향횃집거리’, 2019년에 ‘병영 돼지불고기거리’가 지정됐다. /강진=정영록 기자



목포 솔튼병원 직원들, 차량 화재 대응 ‘신속’

병원 앞 도로서 발생…초기 진화
소방서 합동 정기 훈련 대응 도움

도심을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으나, 운전자와 인근 병원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 탈 없이 마무리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목포소방서와 솔튼병원 등에 따르면 최근 산정동 솔튼병원 입구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의 차량 앞쪽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운전자는 급하게 밖으로 뛰어나오는 긴박한 상황이 CCTV에도 그대로 잡혔다. 운전자는 솔튼병원에서 소화기를 들고 나와 병원 직원들과 화재 진화에 나서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사진〉

이에 병원 소방관리자인 박희석 관리과장에 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 박 과장은 신광진 원무과장과 함께 옥내 소화전 호스를 끌고 나와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차가 신고 접수 8분 만에 완전 진화했다. 이 불로 엔진룸 등 차량 일부가 타면서 소방서 추산 3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솔튼병원은 목포소방서 연산 119센터와 합동으로 정기 훈련을 하고 있으며, 소화기 사용 및 소화전 개방과 환자 안전, 대피와 화재 진압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이 화재진압 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 박희석 관리과장은 “평소 화재 진화를 위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이어온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속도

‘데이터 체계고도화’ 목표 본격 추진

완도군이 해양치유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등을 위한 ‘데이터 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2차 연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1차 연도 사업은 ▲해양치유센터 통합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테라피실 배정·예약·이용·대기 관리 등 운영 자동화 시스템 개발 ▲웨어러블(착용 가능) 기기 및 생체 인식 키오스크 도입 등 치유객 건강 측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 2차 연도 사업은 내년 3월까지 1차 연도 사업을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운영 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 관리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해양치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해양치유 자원(해조류, 머드, 지역 특화 자원 등) 데이터, 이용객들의 건강 데이터, 심리·정서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량적 수치로 입증할 계획이다. 수집·축적된 데이터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치유를 의료·바이오 산업과 연계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 해양치유 테라피 제품 개발, 스포츠 재활 콘텐츠 개발 등 산업을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해양치유 효과를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정량적 지표로 검증하고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대한민국 대표 치유 브랜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해남역 문 연다”…철도관광 활성화 잔결음

郡-코레일 관광 협약 체결
내달부터 운임·입장료 할인

해남군이 다음 달 해남역 개통을 앞두고 철도 기반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코레일과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철도 및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의 3차 협약으로, 전남 5개 군을 포함해 전국 9개 시·군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코레일과 지자체는 기차여행 만들기, 자유여행,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된 철도 연계 관광상품 ‘다시 잇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오는 9월 말부터 기차 여행객은 운임 50% 할인과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객은 당일·1박2일·2박3일 왕복열차 상품을 선택한 후 해남군 지정 관광지 10곳 중 1



해남군이 최근 한국철도공사 대전 본사에서 코레일과 ‘인구감소지역 철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해남군 제공〉

곳에서 QR 인증을 하면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다. 군은 철도와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상품 개발, 관광택시 연계, 체험상품 할인, 지역상권 협력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임성간 철도 개통으로 해남 최초의 철도노선이 들어서며, 계곡면 반계리에 지상 1층 600㎡ 규모의 해남역이 새로 문을 연다. 향후 경

전선 전철화가 완료되면 부산까지 직행도 가능해진다. 손명도 해남군 부군수는 “코레일과의 협력을 통해 해남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주요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한 다양한 철도여행 상품을 개발해 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영광군, 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 ‘청신호’

핵심 현안 정부 국정과제 포함

영광군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현안들이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도시 도약에 청신호가 켜졌다. 18일 영광군에 따르면 정부의 12대 중점과제 가운데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한 성장과 탄소중립’ 항목이 영광군의 발전 전략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해안선, 원전 입지 등 최적 조건을 갖춘 영광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정과제에는 ▲해상풍력단지 및 전용항만 조성 ▲영농형·수상·산단 태양광 입지 확대 ▲RE100 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원 ▲햇빛·바람연금 확대 및 에너지저장시설 조성 등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군은 대마산단 배후단지에 2026-2031년까지 1GW 규모의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최근 수소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에도 나서고 있으며, 생산·운송·소매·연구소 집적을 통해 국비 확보, 대기업 투자,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햇빛·바람 기본소득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로 법제화와 재원 마련이 진행되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영광군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는 기회이자 재생에너지 중심도시로 도약할 전환점”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와 지역경제 성과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군-산단공, 청년문화센터 건립
114억 투입 빛그린산단에 조성

함평군이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에 나섰다. 함평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환경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60억원(총사업비 114억원)을 확보했다”며 “2028년까지 빛그린 산업단지 내에 지역주민과 청년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필요한 지원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업을 관리하며 군이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나선다. 청년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청년의 문화·소통·편의 공간이 마련돼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내 청년을 비롯한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김연수 기자

나주시-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인권 강화 힘 모은다

벽돌공장 인권침해 사건 제기
재발 방지 등 협력 방안 논의

나주시가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만나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사비트리 파나보케(Savitri Panabokke)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한국 이민외국인인권보호 및 지원협력재단 주관 호남지역 특별강연에 앞서 윤병태 나주시장과 환담을 가졌다. 〈사진〉 양측은 나주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출신 노동자들이 인권 보호와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근 발생한 나주 벽돌공장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했다.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스리랑카 국민과 피해 당사자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비트리 파나보케 대사는 “대사관 차원에서 도 자국민을 위한 노동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환담에 앞서 지난날 28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피해자 보호와 일상회복 지원 방안, 실태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경찰서·가족센터·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 상담, 통역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나주=정종환 기자